

김구 선생 시국강연·창극단 공연·가수 리사이틀·권투시합 등 열린 문화용광로

“81년 역사 광주극장을 지켜주세요”

전국 유일의 단관극장
영진위 지원금 없이 ‘홀로서기’
후원회원 모집 나서



19일, 영화 대표 청구에 선 한 관객이 종이를 내밀었다. 광주극장 정기후원가입서다. “감사합니다. 금액 2% 적립에 1000 포인트가 쌓이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직원의 설명이 이어지자 그가 말했다. “아, 그런 것 없어도 되는데. 그냥 더 후원해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예술영화 전용관 광주극장을 자주 찾는 이들의 마음이 딱 이렇다. 언제나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귀한 영화’들을 보게 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무려 81년의 세월 동안 한 자리를 지키는 게 어디 보통 일인가. “광주극장이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같은 공기를 가지고 추억을 갈망하는 이들을 보듬어줘서 정말 감사하다”는 한 관객의 이야기처럼 말이다.

1935년 10월 1일 문을 연 광주극장은 영화 상영은 물론이고 김구 선생 시국강연회, 창극단 공연, 유명가수 리사이틀, 권투시합 등이 열린 문화용광로였다.

광주극장은 최첨단 시설을 갖춘 멀티플렉스에 비하면 불편한 점이 없는 공간이다. 빼그덕대는 낡은 의자는 깔끔함과 거리가 멀다. 불편한 화장실, 담요를 덮고도 떨면서 봐야하는 겨울의 추위까지.

하지만 어떤 극장에서도 볼 수 없는 귀한 영화 라인업과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극장의 모습 덕에 극장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이어진다.

◇독립성 해치는 보조금 거부=광주극장이 홀로 서기에 나선다. 관람료와 함께 주수입원이었던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보조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광주극장을 사랑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정기 후원회원 모집에 나섰다. 1년이면 130~150편을 상영하는 광주극장 관객은 2만 5000명 수준. 역대 최고치는 2014년 기록한 3만 3426명이다.

지난 2003년 영진위는 설 자리를 잃어가는 독립·예술 영화가 관객들과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예술영화전용관 사업’을 시작했다. 첫해부터 지원을 받았던



광주극장은 매년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 2014년(4월1일~12월31일) 인센티브를 포함, 6500만원을 받았다. 그해 총 수입은 1억 8700만원. 전체 수입 중 지원금이 35%를 차지했고, 관람료 수입은 1억 700만원으로 57%였다. 그밖에 대관·임대료가 1500만원(8%)이었다.

지난해 전용관 사업이 폐지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수입(5월 1일~12월 31일) 총 1억1450만원 중 관람료가 8500만원으로 72%. 대관·임대료가 3200만원(28%)이었다.

올해 영진위는 전용관 사업 대신 예술영화유통배급지원 사업을 통해 사전 심사에서 선정된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는 극장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독립예술영화관 모임은 즉각 반발했다. 상영권과 관객의 영화 선택 기회를 박탈하고 예술영화전용관들의 특색과 정체성을 훼손하되 틀 속에 가둬 극장의 작품 선정

권리 등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업이라 판단해서다.

하지만 영진위가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자 회원사들은 각 영화관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리기로 했고 광주극장은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조금 없이 운영하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그동안 신뢰로 쌓아온 광주극장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겠다는 마음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멀티플렉스의 홍수 속에서 광주극장이 견제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영화프로그램의 힘이 크다. CGV 터미널에 무비 콜라주가 개관하기 전까지 광주극장은 예술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또 구로사와 아키라영화제, 왕가위영화제, 쿠바영화제 등 수많은 영화제를 개최, 지역영화계를 풍성하게했다.

◇회원카드 발급, 1만원부터 후원=광주극장을 후원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정기후원 회원으로 가입해 약정한 금액(1만

▲1935년 문을 연 광주극장은 문화용광로였다. 1964년 영화 단체 관람 모습

◀81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광주극장 상영관 내부.

원부터 가증)을 매월 CMS를 통해 후원하면 광주극장 회원카드를 발급해준다. 구매 티켓 금액의 2%가 포인트로 적립되며, 1000 포인트가 쌓이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 광주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꾸준히 관람하는 것,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광주의 극장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 관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후원 방법이다.

회원 모집 소식이 알려진 후 지금까지 100여명이 가입했다. 또 ‘광주영사모’ 시청 회원들은 후원 가입과 함께 티켓 구입, 영상 스태프 제작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그밖에 관객들이 SNS 등을 통해 회원 모집에 나서서 등 광주극장을 살리기 위한 작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극장은 후원회원 모집 안내문에서 “80여년의 전통을 쌓아온 관객들의 응원과 애정, 그리고 영화에 대한 우정을 한 순간에 잃고 싶지 않다. 관객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응원이 함께 한다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광주극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카페(cafe.naver.com/cinemagwangju)에서 받은 신청서를 촬영해 이메일(cine_gwangju@naver.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카펠라로 듣는 ‘비틀즈’

광주아카펠라협회, 25일 ‘Together in harmony’

‘비틀즈 명곡, 아카펠라로 만나다.’ 광주아카펠라협회가 오는 25일 오후 6시 중창로 ‘콘서트홀 57’에서 ‘Together in harmony, 비틀즈를 노래하다’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Yesterday’, ‘Let it be’, ‘Michelle’, ‘All you need is love’ 등 전세계에서 사랑받았던 비틀즈의 명곡과 히트곡들을 각각 아카펠라, 현악 5중주, 남성 중창 등 다양한 장르로 들려줄 예정이다.

출연진은 아카펠라 그룹 ‘The Present’, 클래식 앙상블 ‘Cappella’, 클래식 중창 ‘친친 클래식’ 3팀으로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들이다.

또 비틀즈의 음악세계와 영감을 함께 감상하고, 전 출연진들이 모여 하나의 하모니를 보여주는 합동 공연도 마련돼 있다. 티켓 가격 2만원. 문의 070-4152-542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정민



송애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대학생 협연

23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전문 연주자를 꾸리는 전국의 대학생들과 협연 무대 ‘청년시대’를 마련한다. 2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이날 무대에 서는 협연자는 지난 5월 오디션을 통해 선발했다. 전남대 대학원 국악과 이미소씨가 ‘심청가’ 중 ‘황성 올라가는 대목’을 부르며 같은 과 김정민씨가 박종선류 아쟁산조 협주곡 ‘금당’을 협연한다. 또 국악과 김승용씨가 서용석류 ‘대금산조 협주곡’을 들려준다.

그밖에 송애슬(서울대 한국음악과)씨가 해금협주곡 ‘추상’, 최진영(중앙대 전통예술학부)씨가 가야금협주곡 ‘새산조’, 최지혜(중앙대 전통예술학부)씨가 가야금협주곡 ‘아랑의 꿈’, 송현주(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국악과)씨가 가야금협주곡 ‘소나무’를 협연한다. 지휘는 김광복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사회는 국악인 김산옥씨가 맡았다.

전석 1만원, 학생 50% 할인, 청소년 현장 발권 1000원. 문의 062-415-540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와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권(복성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술향기맑은터.com



술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24시간 OPEN!!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씨는날 화, 목, 토, 일
- ▶ 불씨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

술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술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술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